

KIA 변우혁 “힘 빼고 강해지겠다”



KIA 타이거즈의 변우혁이 우타 거포로 거듭나기 위해 '가볍게 강하게 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적 후 두 번째 시즌만에 KS 우승 잊지 못할 순간 배트 스피드 올리고 우타 거포로 거듭나도록 최선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변우혁이 '가볍게 강하게'를 외치며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 변우혁에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강렬한 잊지 못할 2024시즌이었다. 시즌 초반 2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변우혁은 “그때는 2군에 있지만 시즌 끝날 때는 웃으면서 끝낸다고 계속 생각을 했다. 생각했던 대로 이뤄진 것 같다. 좋은 경험 많이 했다”고 올 시즌을 평가했다. 5월 12일 SSG전을 통해서 시즌 첫 출장을 한 변우혁은 이후 1루와 3루를 오가면서 올 시즌 69경기에 나와 51개의 안타를 만들고, 0.306의 타율을 기록했다. 5개의 타구는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21타점도 올렸다. 그리고 KIA 이적 후 두 번째 시즌에 한국시리즈

무대도 밟으면서 '우승'도 경험했다. 7타수 무안타, 한국시리즈 성적을 생각하면 속스럽지만 성장의 원동력을 얻은 시간이자 '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변우혁은 “앞으로도 이번 한국시리즈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솔직히 백업으로 7타수 치는 게 쉽지 않은데 5경기 하면서 안타를 하나도 못 쳤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5차전에 역전되기 직전에 1사 3루 기회가 왔다. 내가 끝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초구부터 과감하게 방망이 돌렸는데, 빗맞고 파울이 나왔다. 그레도 포볼로 나갔고, (김)태균 선배님이 뒤에서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4차전 1사 만루에서도 너무 쉽게 죽었다. 태균 선배님이 뒤에서 만루홈런 쳐주셔서, 경기 끝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웃었다. 첫 한국시리즈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 후배를 위해 김태균은 집중력 있는 승부로 분위기를 바꾸고, 우승 주역이 됐다. 변우혁은 “태균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못하면 선배들이 해주는 것이다'였다. 그 말에 안심이 됐다. 죽어도 혼자 죽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방망이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았다. 코치님들

도 팀배팅한 것이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경험을 더하면서 수비에서는 자신감이 생겼다. 변우혁은 팀이 기대하는 우타 거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타격에 신경 쓰고 있다. '가볍게 강하게 치는 것'이 변우혁의 목표다. 그는 “수비적으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타격에 몰입하고 싶었다”며 “가볍게 강하게 치는 것이 어렵다. 신체 힘을 빼고 하체로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빨리 힘을 강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 훈련량이 지난해 캠프 때보다 많다. 몸이 지치기는 하지만 지금 아니면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할 수 없다. 지금 해나야 겨울에 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홍세완 코치님, 김주찬 코치님이 주문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시즌 때보다 많다. 지금 아니면 시도를 못 해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문하시는 것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한다”며 “기존에 했던 것은 유지하면서 스피드를 생각하고 있다. 배트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코치님들이 임팩트 순간의 힘을 이야기하신다. 조금 더 가볍게 강하게 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캠프 끝나고 나서도 광주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선수들이 묻고 코치가 답한다

생각하며 뛰는 야구 위해 훈련 앞서 대화의 시간 가져 주루 신무기 연습 '시즌 기대감'

일단 뛸다? 생각하면서 뛸다!
KIA 타이거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캠프 선수단을 신예 선수들로 꾸렸다. 김태형 등 2025 루키 7명도 캠프에 참가해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가 1군 무대를 꿈꾸는 미래 자원인 만큼 1군 코치들과 함께하는 캠프는 특별하다.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1군 코치진에 눈도장도 찍을 수 있는 기회다. 코치들 입장에서 기회는 캠프다. 긴 시즌을 풀어가면서 필요한 '플랜B'를 구상할 수 있고, '원석'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만큼 이곳에서 시간은 금이다. 선수들은 조를 나눠 로테이션을 돌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집중력 있게 또 빠르게 움직이는 캠프지만 이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수동적인 훈련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배운 것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코치들은 선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주루 훈련 시간에도 선수들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먼저 한다. 조재영 작전 코치가 훈련 방법과 이유 등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게 시작이다. 대화의 시간이 끝난 뒤 선수들은 몸으로 직접 이를 확인하고 익히게 된다. 조재영 코치는 “연습 전에 설명해 주고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 뒤 훈련을 진행하는 편이다”며 “선수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그다음에 연습하고, 플레이할 때 빠르다. 이해도도 빠르고 선수가 하고 싶은 모습도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해를 못하면 또 해보고, 물어본다. 선수 생각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한다.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훈련해 봤자 다음에 스스로 할 줄 모른다. 설명하고, 이해했을 때 다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고, 훈련 진행도 빠르다”며 “처음에는 선수에게 질문 있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질문을 유도하기



KIA 타이거즈의 조재영 작전 코치와 선수들이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주루 훈련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 한다. 자꾸 이야기할 수 있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는 굳이 안 물어봐도 선수들이 질문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재영 코치는 반대로 질문을 통해 선수들에게 배우기도 한다.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 도입으로 포수들의 프레이밍 등 플레이에도 변화가 생겼고, 이게 주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조재영 코치는 내년 시즌을 위해 '주루'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았다. 조재영 코치는 “신무기를 연습하고 있다. 내용은 비밀이다. 나중에 시즌에 확인할 수 있다”며 발전의 시즌을 예고했다. /글·사진= wool@kwangju.co.kr

26일 KIA 김도영 '대관식' 열린다

KBO, MVP·신인상 시상식

KIA 타이거즈 김도영(사진)이 26일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이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퓨처스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KBO 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 뒤 KBO 심판상 시상식이 이뤄진다. 이어 각 포지션에서 우수한 수비를 보여준 '9명'에 대한 KBO 수비상 발표와 시상식이 이뤄진다. 행사의 대미는 2024시즌 최고의 신인과 최고의 선수가 장식한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 및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2024 KBO 신인상과 영예의 MVP 주인공을 발표한다. MVP 투표는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및 한국야구기자회에서 후보로 선정한 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린다. 김도영은 올 시즌 KBO 첫 월간 10-10을 시작으로 최연소 30-30, 역대 최소 경기 100득점, 역대 단일시즌 최다 득점,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등을 장식하며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도영은 또 KIA의 해결사로 활약하며 'V12'를 이끌었다. '최고 신인' 자리에서는 고졸신인 데뷔 시즌 최다 세이브(19개)를 장식한 두산 김택연이 눈에 띈다. MVP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The Kia EV9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3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2회째를 맞는 KBO 수비상에는 투수 98명, 포수 14명, 내·외야수 54명이 후보로 각축을 벌였다. KBO는 수비 지표(25%)와 감독 1명, 코치 9명, 단장 1명으로 구성된 구단별 투표인단 투표(75%)를 통해 9명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비상 주인공은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한편 KBO 리그 부문별 1위를 장식한 선수 및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김여울 기자 wool@

함께 해요! V12 타이거즈 페스타

30일 DJ센터...선수단 전원 참여 토크쇼·가족한마당 등 다채

KIA 타이거즈가 '우승 잔치'를 연다. KIA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5시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5000명이 참석하는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연다. 이번 페스타는 2024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룬 KIA 선수단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팬 사인회, 우승 트로피 포토존 등 사전 행사로 문을 여는 타이거즈 페스타는 선수단과 우승 트로피 입장, 선수단 감사 인사,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다시 외치는 한국시리즈 응원전, 호랑이가족 한마당,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등으로 펼쳐진다. 선수들은 팬들을 위해 '호랑이가족 한마당'을 준비해 토크쇼와 장기자랑, 흑백 호랑이, 뮤직비디오 및 숏폼 영상 상영 등을 선보인다. '흑백 호랑이'는 팬들이 참여하는 승부 예측 게임으로 '흑호'팀과 '백호'팀으로 나눠 대결이 이뤄진다. 최종 생존 팬에게는 선수들의 실착 유니폼과 모자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KIA는 이날 페스타 입장 전 직원에게 통합 우승 특별 포토카드와 한국시리즈 응원머플러를 선물한다. 또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이 준비한 팀틀러 1000개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페스타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26일 오전 11시부터 예매(1인 2매 한정)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치지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한편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들은 이날 페스타에 앞서 광주시가 주최하는 카퍼레이드(금남로 5가~5.18 민주광장)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